

# “이제 2026년 밀라노다” 희망 키운 동계 꿈나무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폐막...이재운·소재환·이윤승 등 금 사냥 쇼트트랙 주재희, 피겨스케이팅 신지아·김현겸 등 차세대 스타 줄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TV로 시청하며 꿈을 키웠던 한국 동계스포츠 샷별들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 2024)을 통해 비상하기 시작했다.

한국 10대 청소년 선수들은 강원도 설원과 은반에서 열린 강원 2024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한국 동계 스포츠의 미래를 밝혔다.

값진 경험을 쌓은 유망주들은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당장 2년 뒤에 열린 시니어 동계올림픽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합창했다.

스노보드 기대주 이재운(수리고)은 각종 돌발변수에도 금메달을 따내며 기대에 부응했다.

남자 스노보드 차세대 간판 이재운은 지난 달 25일에 열린 첫 출전 종목, 남자 슬로프스타트에서 경쟁자들을 큰 점수 차로 따돌리며 여유롭게 우승했다.

사실 슬로프스타트는 이재운의 주 종목이 아니다. 그

러나 이재운을 따라올 선수는 없었다.

이재운은 이틀날 훈련 중 왼쪽 발목을 다쳐 목표로 세웠던 '3관왕'을 달성하진 못했으나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 기대감을 높였다.

이재운과 함께 스노보드 메달 사냥을 '쌍끌이'할 것으로 기대했던 여자 하프파이프 간판 최가은(세화여중)은 아쉽게 불참했다.

그는 대회 개막 직전 허리를 다치면서 '올림픽 메달'을 2026년으로 미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쉼터 종목에서도 희망을 발견했다.

소재환(상지대관령고)은 봅슬레이 남자 모노볼(1인승)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48초 63의 기록으로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육상 포환던지기 선수 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스퀘레톤으로 종목으로 바꾼 소재환은 힘과 스피드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종 국제 대회를 거치며 차세대 간판으로 성장했다.

한국 스포츠의 불모지로 꼽히는 프리스타일 스키에서도 깜짝 유망주가 탄생했다.

이윤승(송곡고)은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듀얼 모굴 결승에서 허프 포터(미국)를 18-17로 따돌리고 정상을 밟았다.

윤신이(봉평고)와 함께 출전한 듀얼 모굴 혼성팀 경기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이번 대회에서 메달 2개를 목에 걸기도 했다.

'호자 종목'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차세대 스타들이 줄지어 나왔다.

주재희(한광고)는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21초906의 기록으로 중국 장신저(2분22초095)를 제치고 금메달을 땀다.

한국은 당초 쇼트트랙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휩쓸 것으로 기대했지만 선수들은 압박감과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수를 거듭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

그러나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값진 경험을 쌓으며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상화-김민선(의정부시청)의 뒤를 이을 빙속 단거리 샷별도 나왔다.

정희단(선사고)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39초64의 기록으로 양엘 달레만(39초28·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신지아(영동중)는 '라이벌' 시마다 마오(일본)와 치열한 경쟁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올림픽 무대의 긴장감과 중압감을 미리 경험하며 '예방 주사'를 제대로 맞았다.

신지아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회전수 문제로 스핀 과제 1개를 날려버리는 등 큰 실수를 범했으나 "오늘의 실수가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신지아와 함께 출전한 김유성(평촌중), 아이스댄스 김지나-이나무(이상 경기도빙상경기연맹) 조는 각각 4위의 성적을 거뒀다.

남자 싱글 김현겸(한광고)은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하며 차준환(고려대)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28일 강원 강릉시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에서 대한민국 신지아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22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정희단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탁구 간판’ 신유빈,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 수상

### 최우수선수에 역도 박혜정...우수상 여서정·이다숨·김민선 선정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신유빈(사진)이 제34회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 시상식 조직위원회는 1일 "올해 대상 수상자로 신유빈을 선정하고 최우수선수와 특별공로상 등 부문별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유빈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전지희와 한 조로 출전해 한국 탁구에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선사했다.

신유빈은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에서 2015년 꿈나무상, 2021년 신인상을 받고 이번에는 대상까지 받게 됐다.

최우수선수에는 역도 박혜정이 선정됐고, 우수상 수상자는 여서정(체조), 이다숨(태권도), 김민선(빙상)으로 정해졌다.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도전하는 박인비는 특별공로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더큐어 호텔에서 열린다.

윤곡 김운용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은 고(故) 김운용 IOC 부위원장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 여성체육 발전을 위해 1989년 제정한 한국 최초의 여성 스포츠 시상식이다.

◇제34회 윤곡 김운용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수상자  
▲대상 = 신유빈(탁구) ▲최우수선수상 = 박혜정(역도) ▲우수상 = 여서정(체조) 이다숨(태권도) 김민선



(빙상) ▲특별공로상 = 박인비(골프) ▲공로상 = 황정희(야구) ▲지도자상 = 성지현(배드민턴) ▲신인상 = 김민주(유도) 김승원(수영) 김예림(스켈레톤) 김태희(육상) 오예진(사격) ▲꿈나무상 = 서교림(골프) 송예지(육상/태권도) 신수민(근대5종) 우소민(양궁) 이윤지(수영) 최시연(봅슬레이) 홍효림(태권도) /연합뉴스

## 안병옥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이임식

### 체육진흥성금 500만원 기탁

안병옥(사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소임을 다하고 건강 회복을 위해 이임했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1일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안병옥 사무처장의 이임식을 열고,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했다.

안 사무처장은 지난 2021년 1월 1일자로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뒤 3년 1개월간 전남체육회 발전을 위해 일했다. 그는 재임 기간 '지방체육회 법적 법인화', '전남체육사 II 편찬',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등의 실적을 냈다. 또, 경쟁이 치열했던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 업무를 순탄하게 마무리 짓는 등 전남체육회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같은 실적으로 호평을 받아온 안 사무처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1일자로 사무처장 자리를 떠나며, 앞으로 건강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안 사무처장은 이날 전남체육회 발전을 위한 500만원의 체육진흥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임사를 통해 "전남체육회 사무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사무처를 비롯한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전남체육회 진흥에 힘을 보탬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사무처장 자리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진아 기자 jinggi@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왕가, 신차원! 쟁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날아라 수제김밥~
2관	외계+인 2부
3관	시인덕희
4관	왕가
5관	시인덕희
6관	왕가
9관	위시
7관 씨네마	서울의 봄, 길위에 김대중, 아홉 새로운 시작
8관 씨네마	노랑: 죽음의 바다, 신차원! 쟁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날아라 수제김밥~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마리퀴리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GAC 공모전시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